미8군 본사 공보실 발행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격주간지

카투사 격주간

1976년 6월 1일 창간 THE KATUSA, A BI-WEEKLY PUBLICATION 2005년 11월 첫 번째 30권 16호

이번 호에는...

2면 군관련 소식
8군본사가을체육대회가져
미군가족들과 함께한 한미친선 음악회

3면 군관련 소식
병영생활 대토론회 열려
한마디

4, 5면 부대 탐방
한국군지원단본부

6면 영어교육 연재
Winglish.com

7면 건강 특집
반복 속도 차이에 따른 근력 발달 차이

8면 안녕하세요
美3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12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미국방부 장관 용산에서 회견 개최

지난 10월 특별회견을 갖고자 용산기지를 방문한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방부 장관을 환영하기 위해 컬리어 필드 하우스에는 1500여명의 주한미군, 군무원 그리고 군인 가족들이 운집했다.

문답형식으로 진행된 특별회견 가운데, 럼스펠드 장관은 '자유의 최전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노고를 치하했다.

"약 반세기전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땅 한반도에서는 잔혹한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명이 사망하고 거의 전국토가 황폐화 되었다"고 럼스펠드 장관은 연설을 시작하며 "1950년 여름, 중무장한 북한의 군대가 남침했던 사실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회고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당시 미군 병력이 어떠한 손실을 입었고 희생했는지 설명하였다.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 병사들의 희생 속에서 한국에서의 전투가 과연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백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은 한국을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제8헌병여단 본부중대 소속 밀다 오르티즈-라와스 하사는 "정말 기대했었다. 그의 방문을 위해서 우리들은 많은 준비를 했고 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세워졌는지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또한 "이라크에 있는 병사들에게 모든이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다음처럼 덧붙였다.

2지역대 공보실

이날 회견장에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501 정보여단 소속의 한석진 상병.

"그가 우리들을 잊고있지 않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우리들 역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견에 참석한 병사들은 질의응답 시간동안 이라크에 관한 문제들, 주한미군의 미래, 군 급여 인상 그리고 이혼 합의에 따른 퇴직금에 관한 문제들까지 다루었다.

제311 전구 통신 사령부 소속 제프 헤른던 상사 또한 몇 가지 질문들을 제기했는데 그는 럼스펠드 장관에게 현행법이 그로하여금 그의 군 퇴직금을 이혼한 전처에게 얼마나 많이 분배하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만약 제가 내년에 은퇴하여 미국 남성의 평균 수명을 살게 된다면 저는 전 아내에게 55만불을 고스란히 줘야합니다."

럼스펠드 장관은 "헤른던 상사의 현 상황을 이해한다"고 이야기하며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의 상황을 일례로 들어 반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른던 상사는 월요일 아침 인터뷰에서 "그 자리에서 정답을 찾길 원한 것은 아니다"고 언급하며 "단지 그 문제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이 고려하여 주기를 바랬다"고 덧붙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장병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중요한 업적들을 상기하며 다음처럼 이야기 했다.

"여러분들은 자유의 최전선 위에 있습니다. 역사의 위대한 승리는 자유를 위한 것이며 우리는 자유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

2지역대 공보실 데이비드 맥널리

498 지원대대 암사재활원 방문

카투사신문 김도호

암사재활원에서 직원들과 청소 및 가구재배치를 돕는 498지원대대 및 305병참중대원들.

10월 31일 498지원대대 및 305병참중대원들은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암사 재활원을 방문하여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는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 리언 라포트 대장이 장려한 '좋은이웃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2년 겨울부터 이어졌으며, 대대원들에게는 지난 4월 이후 다시 한 번 암사 재활원 아이들과 함께한 봉사 활동이었다.

498지원대대로 전입하기 전 대구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좋은이웃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는 본부중대 중대장 스티븐 괵 대위는 "이곳 재활원에 와서 이웃들을 돕게되어 기쁘다. 이와 같은 기회에 많은 병사들이 동참하여, 전투복을 입은 미군의 모습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다가서기위해 노력하는 미군의 인상을 한국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침 재활원시설 내부 공사로 분주한 며칠을 보냈던 직원들은 부대원들을 반갑게 맞았고 오전부터 시작된 부대원들의 지원 활동은 오후까지 계속되었다. 청소 및 가구 재배치를 끝낸 후 아이들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 지난 방문으로 낯이 익은 부대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반가움을 감추지 않았다.

김경영 대대선임병장은 모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방문 소감을 전했다.

"오늘 봉사활동은 미군들과 함께 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것 같습니다. 사회에서도 흔치 않은 기회인데 군생활 가운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좋았습니다. 타부대에서도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통해 미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좋아질 것 같고, 군사 외교관인 카투사로서의 역할도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

병장 김도호

8군 본사 가을 체육대회 가져

11월 2일, 용산기지에 위치한 컬리어 필드에서 열린 8군본사 가을 체육대회에서 탱고 경비중대가 농구, 축구에서 맹활약을 보이며 1등을 거머 쥐었다.

8군 병력사령부 사령관 데이빗 워드 중령의 개회식 축사로 시작한 이 대회는 농구, 축구, 릴레이 순으로 이어졌다. 농구와 축구의 준결승전과 결승전은 8군본사 지원대장 임규식 소령과 행정 보좌관 허형수 상사의 관리하에 치루어 졌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축구와 농구 대회는 결승에서 각각 탱고 경비중대와 한국군지원단본부, 탱고 경비중대와 주한미군 특별참모부의 대결로 이어졌다. 치열한 승부가 있었던 농구는 탱고 경비중대가 팀플레이를 앞세우며 착실히 득점을 하여 승기를 잡았다. 특히 접전이 있었던 축구에서는 1대 1로 비겨 연장끝에 승부차기를 가지게 되었다. 5명의 키커로도 승부를 내지 못 한 두 팀은 결국 탱고경비중대의 골키퍼가 한국군지원단본부 선수의 공을 막으며 팀의 승리를 견인하였다. "훈련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다 같이 힘을 합쳐 열심히 하였기에 승리한것 같다"며 탱고 경비중대 김세헌 일병이 우승 소감을 밝혔다.

카투사신문 심영식

탱고경비중대가 축구시합 우승 후 헹가래를 치고 있다.

이어진 릴레이 경기는 두 명씩 짝을 지어 달리는 2인 3각 달리기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되었다. 한 팀당 10개의 조가 이어가며 달린 릴레이 경기에는 주한미군 일반참모부의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가장 먼저 끊으며 우승을 차지하였다. "내가 열심히 달린게 우승을 하는데 보탬이 됐다는 것에 너무 기쁘다"고 주한미군 일반참모부 박태영 일병이 우승 소감을 말하며 "다행히도 각각의 선수들이 호흡이 잘 맞아 순조롭게 달릴수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혔다.

각각 우승자와 준우승자들에게는 상장, 머그컵, 고급펜, 우산, 시계, 액자 등과 3, 4위의 선수들에게는 컵라면, 농구공, 축구공 등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시상식을 주관한 워드 중령은 "열정적이고 단결된 모습들이 보기 좋았다"며 우승팀을 축하하며 대회의 끝을 알렸다. ■

상병 심영식

미군 가족들과 함께한 한미친선음악회

주한미군 공보실 상병 백진영

10월 25일 용산기지에서 열린 한미친선음악회 중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지휘자 서현석씨의 지휘에 맞춰 연주하고 있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 리언 라포트 대장과 권문용 강남구청장 등 주요 인사들과 많은 장병들의 가족들이 참석한 한미친선음악회가 10월 25일, 용산 기지에 위치한 SAHS(Seoul American High School)에서 열렸다. 한미우호협회에서 주관한 이날의 음악회는 약 한 시간동안 13곡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여 관객들의 갈채를 받았다.

이 음악회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서현석씨가 지휘를 맡았고, 소프라노 레이첼 칠드레스씨, 소프라노 김인혜씨, 테너 강무림씨, 그리고 나인 코러스(Nine Chorus)팀이 노래를 하였다. 9명의 한복을 입은 여성들로 이루어진 나인 코러스팀의 'You are my sunshine'으로 시작한 음악회는 경기병서곡 'Overture to Die Leichte Kavallerie', 소프라노 레이첼씨가 노래한 'Arirang', 'Alleluja', 테너 강무림씨의 'Tonight', 소프라노 김인혜씨의 'Over the Rainbow', 'Brindisi'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신아리랑'을 소프라노 레이첼씨가 불렀을때 사람들은 기립박수로 답하였다. "분위기가 매우 좋은 음악회였다" 고 소프라노 레이첼씨는 말하며 "공연 내내 사람들은 좋은 호응을 보여주었고 우리가 원했던 분위기 속에서 진행 할수 있어 기뻤다"고 덧붙혔다.

음악회의 마지막 순서로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팀은 '스타워즈' 등의 영화 음악들과 클래식 음악들을 연주하여 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받았다.

이날 고등학교 강당의 자리를 가득 메운 관객들은 밝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음악을 청취하였다. 음악회에 참석한 탤런트 강부자씨는 "콘서트가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내용이 있고 양국의 민요라든지 자주 듣던 익숙한 노래들도 나와 아주 편안한 시간이었다"며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감명깊었고,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것 같다.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다면 참석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

상병 심영식

Pfc.Fay Jakymec/8th Army PAO

지난 10월 28일 서울 용산구에 개관한 국내 최대규모의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의 모습.

카투사 신문은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신문으로, 1회 4,000부씩 월 2회 발행되고 있다.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국 정부, 국방성, 육군성, 미8군이나 대한민국 육군의 그것은 아니다. 카투사 신문은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된다.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S2372이며 전화번호는 723-4813이다. 모든 글은 용산구 체신청 직영 우체국 사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내면 된다. 전자우편 주소는 eui.jin.choi@korea.army.mil이다.

미8군 사령관
중장 찰스 씨 캠벨
한국군지원단장
대령 이용일
미8군 공보실장
중령 토마스 이 버지나
한국군지원단 정훈장교
중위 이준범
편집장
상병 최의진
기자
병장 김도호
상병 김준식
상병 심영식
상병 이정우

Eighth U.S. Army Commander
Lt. Gen. Charles C. Campbell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Lt. Col. Thomas E. Budzyna
Command Information OIC
Capt. Kone C. Faulkner
Editor
Cpl. Choi, Eui-jin
Staff Writers
Sgt. Kim, Do-ho
Cpl. Kim, Joon-sik
Cpl. Shim, Yung-sik
Cpl. Lee, Jung-woo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 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Department of the Army, Eighth U.S. Army, or Republic of Korea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4,0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Bldg. S2372,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4813.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eui.jin.choi@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 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해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관련 소식 외에도, 전국의 모든 카투사들과 공유하고 싶은 멋진 추억이나 아름다운 이야기, 전하고 싶은 글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전화: DSN 723-4813

E-mail:eui.jin.choi@korea.army.mil

병영생활 대 토론회 열려

지난 11월 1일 용산 기지에 위치한 한국군지원단본부 회의실에서 부대 창설 41주년을 맞이하여 병영생활 대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군지원단장 이용일 대령을 포함하여 제 1, 2, 3, 4 지역에 위치한 각 지역대의 지역대장, 지원대장 및 선임병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카투사들의 병영생활 개선과 지속적인 발전에 관련된 의제들이 논의 되었다. 또 이번 토론은 카투사들도 활발하게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등 이대령의 카투사들의 군생활을 전반에 걸쳐 개선 시키려는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 이기도 했다.

카투사 신문 김준식

용산기지 한국군지원단본부에서 열린 병영생활 대토론회 중 한국군지원단장 이용일 대령을 포함한 여러 간부 및 사병들이 토론을 나누고 있다.

토론회 중 평택 지역대 소속 두 명의 병사들이 각각 선임병과 후임병의 입장으로 병영 생활에 대한 발표를 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는데 선임병의 입장에서 발표를 한 평택 지역대 2전투 항공여단 본부 중대 소속 신재관 상병은 발표 말미에 이강언 대전대 군사학과장의 말을 인용하며 "신세대 장병들의 특성을 파악, 지나친 상명하복식의 강압적 문화를 타파하고, 구성원들을 서로 배려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문화를 군대문화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계급은 군대의 중요한 골격이지만 그 안에서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 되어야 하고 구태의연한 정신교육에서 벗어나 사명의식과 전우애를 함양시켜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한 "일주일동안 발표 준비를 하느라, 섹션일도 많이 못해서 같은 부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준비를 하는 동안 선임으로서 후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토론을 이끌었던 이 대령은 "준비하느라 수고한 간부와 병사 모두에게 고맙게 생각하며, 평소에도 각자 위치에서 느낀 점들을 진실되게 이야기 해보고 한국군지원단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한다"고 말하며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군으로서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공동체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가 노력하고, 한국군 특유의 군 기강과 미군의 자유로운 문화를 조화시킨 선진 병영문화를 이룩해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오늘처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시간이 필요하단 걸 절실히 느꼈다"고 훈시를 하는 것으로 이날 토론회는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

상병 김준식

한국군지원단 연혁

한국군지원단은 1965년 5월 11일, 당시 미8군 사령관인 해밀턴 장군의 요청에 의거 카투사 인사행정 지원을 목적으로 155명의 장교로 구성된 '미8군 연락장교단'으로 시작하여, 1986년 11월 1일에는 「미8군 한국군 지원단」으로 부대명칭을 공식 변경하고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예하대 5개 지역대를 두어 활동하기 시작했다. 1997년 11월 1일에는 한국육군 본부로 정식 편제되었으며, 이에따라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양국간의 군사협력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은 작전 개념과 그 임무를 고려해 전국을 제 1,2,3,4지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마다의 주요 전술적 임무에 맞게 부대를 배치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지원단은 여단급이상과 대대급 이하를 구분하여 약 60여개 지원대를 구성하고 있다.

Ä«Åõ»ç ÇÑ¸¶µð

지금까지 군생활을 돌아보며

한국군지원단본부 행정과
상병 권용주

모든 훈련 및 교육을 마치고 시작한 자대생활은 한 마디로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편하다고 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았고, 힘들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사회에서는 쉽게 시작하지도 못하던 운동도 시작하고 그다지 읽지 않던 책에도 손을 대면서 전체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성격상 가끔 타 국군 부대에 갈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때 과장님께서 사주신 추어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군지원단본부 행정과
일병 심중현

용산으로 전입한지도 반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카투사들과는 달리 단본부에서 근무하는 카투사들은 한국군 간부님들을 많이 상대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점들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잘 적응하였습니다. 카투사들의 최상급 부대인 단본부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저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지원단본부 정보작전과
상병 이재훈

군 생활을 1년 남짓 해오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즐거웠습니다. 카투사라는 여러 기회가 주어진 환경에서 잊지 못할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남은 군생활 동안 더 많은 것을 얻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지원단본부 지원과
상병 안신명

한국군과 미군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단본부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한,미간 조직문화의 차이를 생생히 체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일을 하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인간관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카투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결심한 이들은 제2육군훈련소에서 5주간의 훈련을 마친 후 시행하는 군사 주특기 배정에서 '미8군 소속'이 된다. 한국군으로서 주한 미군과 협력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카투사'의 복무 특성 때문에 군 복무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외부사람들은 카투사들과 미군들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카투사들은 월급을 미화로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거나 혹은 KATUSA - Korean Augmentation to the U.S. Army(미군에 증원된 한국군) - 라는 약자를 Korean Attached to the U.S. Army(미군에 예속된 한국군) 라고 설명하는 이들을 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비록 카투사들은 공조차원에서 주한미군 영내에 배치되어 그들과 함께 복무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군에 속하지는 않는다. 즉 전국의 카투사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군사 주특기 배정에서 '미8군의 소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8군 한국군 지원단본부'에 속하는 것이다. '자신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근간을 이해하라'는 말처럼, 이번 카투사 신문의 '부대탐방'란에서는 전국 카투사들을 전입부터 전역까지 담당하는 한국군 지원단본부를 찾았다.

한국군 지원단본부의 부대 마크는 상당히 친숙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태극기에서 자주 보았던 태극문양을 배경으로 정중앙에 연결 고리의 형상을 띤 숫자 8이 위치하고 있고 태극문양의 원주를 따라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8th Army ROKA Support Group)'이라 새겨져 있다. 부대 마크는 한국군을 상징하는 태극문양과 그 정중앙에 위치한 숫자 8이 대표하는 미8군 사이의 '탄탄한 연결 관계, 즉 긴밀한 상호 공조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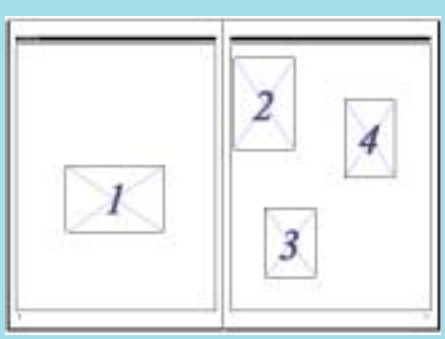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연합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간의 비공식 협정에서부터 시작된 카투사 제도를 모체로 하고 있는 한국군 지원단본부는 1965년 5월 11일, 당시 미8군 사령관이었던 하우즈 해밀턴 중장과의 협의 끝에 카투사들의 행정지원을 위한 장교 155명으로 구성된 '한국군 연락 장교단'으로서 시작되었다. 이후 육군 참모총장과 미8군 사령관의 합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카투사 병력의 감축을 이루었고 그로 인한 카투사들의 군 복무 생활 여건의 개선을 도모하였다. 1986년 11월 1일에는 기존의 '한국군 연락 장교단'이라는 명칭에서 '한국군 지원단'이라는 명칭으로 정식 변경하였고 1989년 5월 1일에는 기존 육군 본부의 지휘에서 한, 미 연합사 부사령관에게로 지휘 감독의 권한이 조정되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카투사들의 인원 감소를 감행하여 복무여건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1997년 11월 1일에는 한, 미 연합사 부사령관에게로 조정 되었던 지휘 감독 권한이 다시 육군 본부 정보작전부서로 전환되며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에서의 임무를 한국군에게 이양하고 미2여단 내의 규모 및 구조적인 개편을 통하여 처음 카투사 제도 협정이 시작 되었을 때에 1만 2천 명에 달하던 카투사 병사들을 2004년에는 4천여 명으로 감축하여 그 질을 크게 향상 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8년에는 대통령 부대표창을 2004년에는 육군 본부 참모총장으로부터 부대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한국군 지원단본부는 산하에 정보작전과, 지원과 그리고 부관과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서를 두고 있다. 평시에는 미2사단 지역대에서 용산 지역대, 평택 지역대를 거쳐서 대구 지역대까지 한반도 전역에 걸쳐 주한 미8군과의 연락업무 및 한국군의 대표로서 카투사들의 인사행정, 지정된 교육업무 등 을 주로 맡으며 전시에는 그 기능 및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어 기존의 네 개의 지역대를 포함, 두 개의 추가 지역대까지 통솔하기도 한다. 주한미군과 연락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군 지원단본부의 위치에 전시 지휘소를 개소하고 제3지역의 캠프 워커에 위치한 특정 지휘소로 작전참모부와 함께 이동하여 임무를 수행하며 전시 카투사 동원계획에 의거 증원 미군부대에 카투사 병력을 배치하며 임무수행에 따른 카투사 병력 손실 보충 및 제반 업무를 파악 하는 등 더욱 다양한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기자가 부대탐방 취재를 위해서 한국군 지원단본부를 찾았을 때, 그곳은 육군 본부에서 시행하는 감사 및 수검으로 인해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지원단본부가 육군 본부의 직할 부대이다 보니, 분기별로 시행되는 감사 및 수검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원과는 육군 본부에서 요구하는 지원대장님들 및 카투사들의 정보를 각 지원대에서 수합하여 보고하는 일을 주로 하게 됩니다."

한국군 지원단본부 지원과에서 근무하는 안신명 상병은 현재 지원단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관해 이와 같이 간략하게 이야기 하며 인터뷰에 응했다.



1. 정보작전과 소속 박영찬 병장, 박진희 상병 그리고 조은상 상병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 부관과 소속 강남훈 병장과 권지혁 병장이 전국 카투사 프로필을 조회하고 있다.
3. 행정과 소속 권용주 상병과 정승찬 이병이 지원단장의 일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다.
4. 정훈과 소속 김규식 상병과 유청산 상병이 각종 출판 및 비디오물을 정리 중이다.

"검열에 관련된 정보들은 지역대와 지원대를 거쳐 각 섹션에 하달되어 카투사 전원에게 전달됩니다. 육

군 본부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그 반대의 과정으로 수합됩니다."

이처럼 효율적인 체계는 병사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고안된 병영 생활 대토론 프로그램과 함께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 및 카투사 개개인의 생활수준 개선 등에서 탁월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한다.

안 상병은 "상호 집단 간에 협력관계가 긴밀하긴 하지만 전달 과정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관리가 힘든 경우도 있다"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원단본부에서 근무하는 카투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료 카투사들의 군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이기에 마치 저와 제 가족의 일처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카투사들의 생활수준 및 처우가 향상될 때마다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과에서는 한국군 지원단본부에 소속된 장교들과 부사관들의 인사관리, 각 지원대장의 복지업무, 카투사 생필품 및 관심 사병의 관리 등도 맡고 있다.

지원단본부에 속하는 또 다른 부서인 행정과는 간부들의 급식비, 지역대 및 예하대대 통장관리 지원단장 보조 및 미측 장교와의 통역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행정과소속 이상엽 상병은 통역 업무에 관한 자신의 특별한 경험에 관해서 이야기 했다.

"몇 달 전에 미8군 윌러 주임원사님이 한국군측 주임원사단을 용산 기지에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부터 한국군 지원단장인 이용일 대령님의 통역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었기에 그 때에도 한국군 지원단 주임원사인 서영택 주임원사님과 윌러 주임원사님 사이에서 통역을 맡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뜻 깊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군 지원단본부 정훈과에 근무하고 있는 유청산 상병 역시 자신이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해 언급했다. 주로 카투사에 관련된 외부의 취재요청에 응하여 육군 본부의 승인을 받은 적절한 보도 자료를 외부에 게재하는 일을 하는 정훈과는 최근에는 한 시사 잡지에 카투사에 대한 취재를 지원했다고 한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정훈과는 성격상 미8군 공보실과 흡사합니다. 육군 본부를 경유하여 혹은 방송국에서 직접 카투사에 관련된 취재를 요청 했을 시에 홍보시안을 제작,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사주간지인 한겨레21에서 카투사에 관련된 취재 요청을 하여 취재 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무실을 함께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부관과는 카투사로 선발된 장병들의 관리 및 보직, 거주지 분류를 수행하고 있고 정보작전과는 상급 부대에서 요청하는 공문 처리 및 명령 지시, 이행, 감시 등을 수행하거나 검열에 관한 자료들을 준비하기도 한다.

한국군 지원단본부에 근무하는 카투사들은 월, 수, 금 주 3회 체력 훈련을 실시한다. 그들은 여섯시에 트렌트 체육관에 모여서 간단한 근육 운동을 한 후에 캠프 코이너까지 달리기를 하는 것으로 아침을 맞이한다. 이중 금요일에는 지원단본부에서 근무하는 장교 및 부사관들까지 함께 체력단련을 수행한다. 한국군 지원단장의 지휘하에 지원단본부소속 간부 및 장병 전원이 단본부 건물에서 시작하여 52번 출구까지 왕복하여 달리기를 한다. 이는 한 시간 정도 지속되며, 체력단련 후 개인정비 시간을 가진 다음 9시까지 각자의 사무실로 출근한다. 체력단련을 하지 않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동계에는 8시 30분, 하계에는 8시까지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한다. 업무는 일반적으로는 오후 5시에 모두 종료되나 특별한 경우에는 일을 끝마칠 때까지 야근을 하기도 한다. 지원단본부에서는 일병 이상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CQ도 존재하는데 이는 지역대별로 보고하는 내용을 수합하여 간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이다.

미군들과 함께 근무를 하는 여타 카투사들과는 달리 한국군 장교들과 근무를 하는 한국군 지원단본부소속 카투사들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 지원단본부 부관과에 근무하고 있는 권지혁 선임병장은 "지원단본부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카투사들을 관장하는 최상위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라서 그 것에서 오는 중압감 및 책임감이 없지는 않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 했다.

"업무 자체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업무가 끝난 이후에 잔업 및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게다가 이국의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세계적인 안목이라던가 '카투사'라면 우선 떠오르는 완벽한 영어구사능력도 한국군 지원단본부에서 근무하게 되면 사실 얻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들을 얻습니다."

권 병장은 이처럼 이야기하며 자신의 군 생활동안 경험했던 지원단본부소속 카투사로서의 장점들에 관해서 이야기 했다.

"카투사들과 간부님들의 관계는 매우 긴밀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군대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고압적 장교'와 '수동적 병사'는 한국군 지원단본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서로 협력하고 돕습니다. 그 와중에서 신뢰와 존경심이 싹틉니다. 며칠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군 지원단본부 전체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청소라고 하면 낮은 계급의 사병들만 열심히 청소하게 되는 광경을 보기 쉽습니다만 저희는 카투사들 간에 계급을 막론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간부님들까지 두 손을 걷어 올리고 도와주셨습니다. 그 결과 청소 또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를 지도하려면 이 같은 아량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을 다시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업무 외적으로도 한국군 지원단본부에 소속된 카투사들과 간부들의 결합력은 대단하다. 한국군 지원단본부 부관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종민 상병 또한 다음처럼 이야기하며 친밀함을 과시했다.

"저희 지원단본부 소속 카투사들은 운동을 매우 좋아합니다. 비단 카투사들뿐만 아니라 간부님들께서도 운동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병사들도 함께 축구 같은 구기 종목을 자주 즐깁니다.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함께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통된 목표를 위해서 땀을 흘리면 장병간의 우애는 물론 간부님에 대한 존경심도 더욱 커져서 매우 좋았습니다."

지원단본부 소속 카투사들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하고 건물을 나서는 기자의 귓가에는 인터뷰 중 권지혁 선임병장이 말했던 "전역 후에 한국군 지원단본부에서 군 복무를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 할 수 있다"는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다. 현역 카투사들 전원을 미군으로 부터 대변하고 그들의 군 생활을 보좌하는 최상위 부대, 그렇기에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고 더 나은 군 생활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부대, 그는 이러한 한국군 지원단본부를 사랑하고 그곳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예전에는 "자신이 복무한 군부대 쪽으로는 소변도 안 본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권지혁 선임병장은 자신이 전역할 부대를 자랑스럽게 생각는 동시에 사랑하고 있었다. 군대는 변하고 있다. 그 증거를 기자는 이번 부대탐방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

상병 이정우

BESTSELLER

쏘주 한잔 합시다

유용주 / 큰나

MBC '느낌표' 작가 유용주가 <그러나 나는 살아가리라> 이후 5년 만에 펴내는 산문집. 밑바닥 삶을 부유하며 치열하게 살아온 저자가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한다.

제1부 '오래된 사랑' 외 3편, 17일간의 승선 일기로 구성된 제2부 '아름다운 것은 독한 벱이여', 제3부 '그 숲길에 관한 짧은 기억', 제4부 '봄은 왔건만' 외 9편으로 총 16편의 산문을 만날 수 있다.

WEBSITE

투어 익스프레스

www.tourexpress.com

투어 익스프레스는 기존의 여행을 벗어나 고객 개개인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 시켜 줄 수 있도록 항공, 숙박, 부가 상품 등 모든 여행 요소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해 주는 Tour Consulting Service 를 지향한다. 이와 같이 투어 익스프레스의 로고는 고객에 대한 지원과 도움을 상징화한 날개로 디자인 되었다.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English Biz - Whiz

제 15 장

1. 우리 일상 생활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TV입니다. TV 프로그램은 광고로 시작해서 광고로 끝나지요.

이 광고 시간을 견디지 못하여 계속 리모콘을 누르며, 진행되는 프로그램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TV 프로그램보다 광고가 더 재미있어 광고를 즐겨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광고를 15초의 예술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의 효과에 대한 찬반론도 많습니다. 그 중 광고에 대해 반대를 하는 측에서는 선정성이나 폭력성 또는 지나친 소비 심리 부추김 등을 광고 반대의 이유로 들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광고를 보실 때 그 광고 내용이 인상에 남으시나요, 아니면 광고 제품이 남으시나요?

전, 수많은 핸드폰이나 통신 광고를 보고 광고 내용은 기억나는데, 그것이 어느 제품인지, 예를 들면, 011인지, 017인지, 019인지는 모르겠더라구요.

자, 그럼 오늘의 문장을 만들어 보지요.

먼저, 어휘입니다.

[어휘 tips]

광고 : advertisement, 또는 간단히 ad

일반인 : people, ordinary people

소비 : consumption

부추기다 : stimulate

단점 : demerit, disadvantage

위 어휘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텔레비전 광고는 – 단점을 가지고 있다. : TV ads have a demerit of--.

일반인들의 소비 심리를 부추긴다 : it stimulates people's consumption.

(여기서 심리는 굳이 문장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완성하면,

TV advertisements have a demerit of stimulating people's consumption.

TV ads stimulate people to consume more goods.

텔레비전 광고는 일반인들의 소비 심리를 부추기는 단점이 있다.

TV ads have a demerit of stimulating people's consumption.

TV ads stimulate people to consume.

2. 영어 유머입니다. 단체 관람에 관한 것이지요. 참고로 영국의 자동차 번호판은 숫자 뒤에 알파벳을 쓰는데 이것은 자동차 등록 연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럼 읽고 웃어보지요.

A group of elementary school boys were touring the British Museum in London. When they noticed an Egyptian mummy case was marked "1286 B.C," one boy asked his friend, "What does that number mean?"

"I guess it's the license number of the car that hit him,"replied the second boy.

B.C가 "기원전"이란 뜻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지요?

오늘은 단체 관람이란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단체 관광, 단체 예약, 단체 관람 등 등, 단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group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문장을 해보지요.

먼저 어휘입니다.

[어휘 Tips]

국립 박물관 : the national museum

초등학생들 : elementary school students

단체 관람 : group touring

참고로 단체 예약은 block booking이라고 합니다.

문장을 만들어보지요.

어제 국립 박물관에 갔다 : I went to the National Museum yesterdy.

초등학생들이 단체 관람하고 있었다 : A group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touring.

여기서 문법상 중요한 것은 과거 진행형 시제입니다.

"– 했을 때 – 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앞 절의 시제는 과거, 주절의 시제는 과거 진행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완성하면,

When I went to the National Museum yesterday, a group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touring.

어제 국립 박물관에 갔는데 초등학생들이 단체 관람을 하고 있었다.

When I went to the National Museum yesterday, a group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touring.

3. 단추 얘기군요. 옷을 여미는 수단으로 지퍼와 단추를 사용합니다. 끈도 있지요.

단추는 아시다시피 button입니다. 그리고 단추구멍은 button hole이지요.

단추를 사용한 표현들로 "단추가 떨어지다"는 뭐라고 할까요?

우선 어휘를 알아보지요.

[어휘 Tips]

블라우스 : blouse

단추가 떨어지다 : come off

cf. 단추가 풀어지다 : unfasten

단추구멍 : button hole

실 : thread

풀어지다 : be unfastened, be unraveled, be loose

그럼 문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블라우스의 단추가 하나 떨어졌다 : a button of my blouse came off

단추구멍의 실이 풀어졌다. : the threads of the button hole were unfastened, the button hole has loose threads

그럼 문장을 완성해 보지요. 쓰이는 접속사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말 문장을 일일이 다 영작하려고 하지 말고, 핵심적인 내용의 전달이 중요하다는 것 아시지요.

블라우스의 단추가 하나 떨어져 봤더니, 단추 구멍의 실이 풀어져 있었다.

As I saw a button of my blouse coming off, the threads of the button hole were unfastened.

The button hole had loose threads and the button came off.

■건강특집

¹Ý°¹ ¼Óµµ Â÷À̿¡ µû¸¥ ±Ù·Â ¹ß´Þ Â÷À̿

반복 속도 차이에 따른 근력 발달 차이

벤치프레스나 스쿼트와 같은 대근육 운동들의 경우, 사용 중량과 근매스가 어느 정도 비례하기 마련입니다. 중량이 늘어나면 근육도 좀 더 커지고, 근육이 커지면 중량도 늘어나는 법이죠.

이에 때로는 파워리프팅 훈련방식을 통해 일단 힘을 키워 사용 중량을 늘린 후 근육을 이에 맞춰서 발달시키는 방법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벤치프레스 같은 운동을 할 때, 반복 속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근력(strenth)의 발달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수축 동작시 근육의 긴장을 의식적으로 유지하면서 천천히 밀어올리는 것보다는 최대한의 힘으로 폭발적으로 빨리 밀어올릴 때 근력의 발달이 보다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그룹의 미식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벤치프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 수축동작시 천천히 반복속도를 유지한 그룹의 경우 평균 5kg의 중량 향상이 이루어진 반면 최대한 빠르게 반복속도를 시도한 그룹의 경우 평균 9.75kg의 중량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약 2배의 차이가 나네요.

반면 실제적인 근육량(근매스)의 증가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테스트 기간이 짧았던 만큼, 근력 증가가 근육량의 증가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기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량 정체기에 있는 분들이나, 목표 중량에 빠르게 도달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 수축동작시 최대한 빨리 반복속도를 내게 되면 보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텐데요.

실제로 미국의 Westside Barbell이라는 유명한 파워리프팅 체육관에서는 근력을 늘리기 위해 이와 같은 스피드 적용 트레이닝을 자주 사용합니다. 보통 1RM(한번에 들 수 있는 최대 중량)의 45%정도 되는 중량을 이용하여 훈련합니다.

한편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에 충분히 적응이 안된 상태의 초보자분들에게는 자세의 흐트러짐으로 인해 부상의 우려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체중 증가를 위한 프로그램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체중증가를 위한 프로그램?' 이 무슨 배부른 소린가 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헬스크럽에 보면 체중증가를 위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체중증가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

들을 보면 그 노력과 고충이 다이어트를 위한 분들 못지 않는데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고 하소연 합니다.

살이 찌지 않는 원인을 살펴보자면 살이 찌지 않는 분들은 체형적으로 외배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배엽이란 몸에 신진대사가 빨라 많이 먹어도 다 소화되고 영양이 신체에 쌓이지 않고 다 소모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살 찌는것보다는 운동을 통하여 근육을 만들어 몸무게를 늘리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아래에는 외배엽인 분들이 근육을 통하여 몸무게를 늘리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1. 큰근육 위주로 운동한다.

우리 몸에는 어깨, 가슴, 이두근, 삼두근 등 근육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슴, 등, 다리는 큰 근육에 속하고 나머지 어깨, 이두,삼두, 종아리 등은 작은 근육군에 속합니다. 몸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큰 근육군 위주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 머신 보다는 프리웨이트 운동이 좋다.

머신이 좋냐? 프리웨이트가 좋냐?는 꾸준한 공방이 이어져 오고 있는 주제입니다만... 일반적으로 근육을 고립시켜 선명하게 만드는데는 머신을 많이 이용하고 근육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덤벨, 바벨과 같은 프리웨이트를 이용합니다.

3. 고립운동보다는 다중관절운동

벤치프레스와 같이 한가지의 운동을 위해 어깨,삼두,가슴등 다양한 근육이 움직이며 또한 어깨, 팔꿈치등 2가지 이상의 관절이 움직이게 되는 운동을 다중관절 운동이라고 하며 버터플라이, 덤벨플라이와 같이 가슴만을 자극하기 위하여 한가지 관절이 움직이는 운동을 고립운동이라고 합니다. 근육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고립운동보다는 다중관절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4. 휴식과 영양

신진대사가 빨라 살이 찌지 않는 분들에게는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몸무게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살이찌기위해 자고 먹고를 반복하는 스모선수들 같이 몸무게를 늘리기 위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게을르게 운동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시간은 가능한 1시간안에 빨리 끝냄으로서 에너지의 소모가 과하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탄수화물,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자주(하루에 6~7끼)하셔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살이 찌고 자 운동하시는 분은 일단 체육관에 나오셔서 준비운동으로 약간의 유산소운동(약 5~7분정도)을 하신 후 근력운동을 하십니다. 근력운동을 하실때는 짧고 굵게 약 1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시고 운동시 무게는 가능한 무겁게 함으로서 근육의 크기를 키우는데 중점을 둡니다. (여기서 가능한 무겁게란 10~12회보다 더 적게할 수 있는 무게를 말합니다)

운동을 하실때에는 고립운동보다는 다중관절운동을 프리웨이트로 실시하시고요.. 운동이 끝난 후 충분한 영양과 휴식을 취해 주세요. ■

글, 그림 제공 : BBMANIA.COM

MOVIE

로드 오브 워

감독: 앤드류 니콜
주연: 니콜라스 케이지

유리는 모든 거래에서 자신만의 탁월한 협상력을 자랑하며 승승장구하고, 이 때문에 국제 인터폴 잭의 집요한 추적을 받게 되지만, 거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래가 더욱 위험해지면 위험해 질수록, 그것을 통한 짜릿한 쾌감에 더더욱 빠져들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친동생까지 끌어들이며 자신의 무기 밀거래 사업의 범위를 급격히 넓혀가며 '전쟁의 제왕'으로서의 그 위세를 더욱 높여 가는데...

TOP CHARTS

2 ♥

GOD

2. Tonight/동방신기
3. 2:00 AM/BIN
4. Girl Friend/이민우(M)
5. 지지않는 태양/장우혁
6. Fly/에픽하이
7. 몇번이나/1TYM
8. Good-bye Luv/휘성
9. 기억이란 작은 마을/문희준
10. 별, 바람, 햇살.../김종국
11. 첫사랑/Paran
12. A-Ha/IVY
13. One more time/i-13

이번호에는 뛰어난 가창력과 실력 그리고 섹시함까지 3人3色의 넘쳐나는 끼를 가진여성 3인조 힙합 그룹 美3를 만나 보았다.

-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美3: 안녕하세요? 미쓰리의 신미연, 박경윤, 박지영 이라고 합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지면상으로나마 카투사 여러분들을 만나게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 타이틀곡 '캐쉬'를 비롯해서 이번 앨범 특징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타이틀곡인 '캐쉬'는 미디엄 템포의 힙합 색깔이 가미된 곡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저희들의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가사를 쓰고, 랩 메이킹도 저희가 직접 참여한 곡입니다. 그리고 앨범 전체적으로 디스코, 마이에미, 클럽댄스 등 각각의 분위기를 정통으로 느껴 볼 수 있는 곡들이 담긴 앨범이랍니다.

- 멤버 모두 뮤지컬, 모델, 농구선수까지 하셨었다고 알고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하고싶은 다른분야의 일이 있다면?

신미연 : 저는 기회가 된다면 예전에 하던 뮤지컬을 해보고 싶습니다.

박경윤: 제가 인생을 걸고 했던 농구를 다시 또 시작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인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하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 능력이 된다면 모든 분야에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박지영 : 저는 평소에 관심있던 금융업을 하고 싶어요.(웃음)

- 카투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우선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고, 멋진 베레모를 쓰고 있는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른 답니다. 그리고 다들 미남이신거 같아요.(웃음)

- 카투사들에게 한마디?

힘든 군생활 미쓰리로 인해 더욱 힘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건강히 전역하시길 빌겠습니다. 화이팅!

카투사 신문 김준식, 이정우